

KTX 차별...광주송정역 운행 횟수 울산·대구 절반에 그쳐

이용객 적은 울산역 운행횟수 더 많아...최신형 열차 '청룡'도 차별 편성 광산구의회, "명백한 지역차별...호남선 고속철 증편·인프라 확대" 촉구

광주송정역 KTX 등 호남선 고속열차가 운행 횟수 등에서 타지역과 비교해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광주송정역의 경우 울산·동대구역 등에 비해 운행 횟수가 턱없이 적고 운행 시간 차도 큰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증편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광주송정역 KTX는 일평균 7815명이 이용하고, 평일 기준 하루 46회 운행했다. 같은 기간 동대구역은 일평균 1만4152명에 156회를 운행했다. KTX 이용객을 단순하게 운행 횟수로만 나눠도 KTX 1대당 이용객 수는 광주송정역 169명, 동대구역 91명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특히 송정역보다 하루 이용객이 2000명 넘게 적었던 울산역(일평균 이용객 5717명)의 KTX 하루 운행 횟수는 오히려 광주보다 25회나 많은 71회로 집계됐으며, 평당 이용객 수도 광주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80여명에 불과했다.

이용객이 급증하는 주말에도 송정역만 46회로 하루 운행 횟수가 평일과 동일했으며, 울산·동대구·부산역 등은 6회에서 30회까지 증편돼 차별적 운행 격차는 더 커졌다.

광주 송정역은 또 동대구·부산역 등과 비교해 운행 시간차도 컸다. 주말 기준으로 운행 간격은 동대

구역 12분, 부산역 19분, 송정역 48분이었다.

송정역은 운행 차량 모델 중 가장 탑승 인원이 적은 'KTX 산천' 비율도 다른 지역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지난해 새로 도입한 최신형 고속열차 'KTX 청룡'은 주말 동대구 4편, 부산 4편이 편성됐음에도, 송정역은 평일 2회만 운행할 뿐 주말에는 운행 조차 되지 않았다.

결국 광주송정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광산구의회는 이날 송정역을 오가는 호남선 고속열차 증편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차별 철폐를 주장하고 나섰다.

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송정역 고속철도 이용객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열차 운행 횟수와 편성 등 여건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속열차 운행의 심각한 불균형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고 명백한 지역 차별이자 지역발전 저해하는 요인 만큼 고속열차를 증편하고 호남선 고속철도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재봉 광산구 의원은 "광주송정역 KTX는 운행 횟수·간격, 차량, 좌석 수에서 대구·울산·부산행 KTX보다 명백한 차별을 겪고 있다"면서 "구의회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최소한 타 지역 수준의 열차 증편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24일 광주 북구 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열린 골목형상점가 상호협력과 발전을 위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연합회 발대식에서 문인 북구청장과 정준호 국회의원, 신수정 시의장, 양충호 연합회장, 회원들이 축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mjna@kwangju.co.kr

광주시, 534억 투입 소상공인에 온기 불어 넣는다

소비 촉진·경영부담 완화·재기 지원·시장 활성화 등 37개 사업 추진 상생카드 특별할인·공공배달앱 활성화·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확대

광주시가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녹이고 소상공인에게는 온기를 불어 넣을 '민생경제 회복 정책'을 강화에 나선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비 534억원을 투입해 소비 촉진 및 경쟁력 강화, 경영부담 완화, 재기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등 4대 전략 37개 사업을 추진한다. 고물가, 고금리에 내수 침체까지 겹쳐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악화하고, 앞선 대침체로 비상경영으로 소비 위축까지 더해진 데 따른 긴급 조치다.

광주시는 일단 광주상생카드 10% 특별할인을 1월에 이어 이달까지 이어간다. 상생카드 사용자에게는 월 50만원 내에서 할인(7~10%) 혜택을 제공

하고,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카드수수료 전액을 지원(0.25~0.85%)한다. 또 공공배달앱을 지속 운영하고, 할인 프로모션과 소비자 배달료 지원 등을 통해 소비 촉진을 독려하고 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추진했던 디지털 전환, 상품화 지원, 우수 상권 육성사업(3개소)도 계속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도 지난해보다 200억원 늘려 1700억원 규모로 지원하며, 특례보증을 통해 연체당 5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3~4%의 대출이자를 1년간 지원한다.

광주시는 특히 연매출 5000만원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중소기업권 금융비용(대출이자 35만원 한도)을 지원하는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권 금융

비용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1인 자영업자와 1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지원(20~100%),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월 50만원, 최대 3개월) 사업도 지속된다.

위기 소상공인의 안정적 재기를 돕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2만원, 12회)을 지원하고, 금융소외자를 돕는 빛고을은 신규 대출자에게는 대출이자 최대 3.5% 지원한다.

이 밖에도 총장로와 광주송정역 2개 상권을 대상으로 상권 환경 개선 및 활성화 등 르네상스 사업을 진행하고, 시설현대화 사업도 병행한다.

주재의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소상공인의 팍팍함이 헛되지 않도록 광주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면서 "시민들도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광주상생카드와 공공배달앱 이용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마다가스카르서 한국인 선교사 2명 강도 공격 사망

아프리카 동쪽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서 한국인 선교사 2명이 강도의 공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가족관계인 두 선교사는 지난 21일 예배당 부지에서 흥기를 지닌 현지인 강도 여러 명에게 공격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범인들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들이 돈을 가

지간 것으로 볼 때 금품을 노린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범행 동기 또한 확인되지 않았다.

주마다가스카르대사관은 현지 경찰 당국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교사의 국내 유가족도 현지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건 인지 이후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무안공항 '교육기관 훈련비행' 재개

참사 56일만...항공기 이·착륙 9월 이후 가능할 듯

제주항공 참사 이후 56일 만에 무안공항의 비행기 이·착륙이 가능해졌다. 공항 내 주기장을 두고 있는 교육기관의 훈련을 위한 비행으로 제한됐지만 공항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24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전면 폐쇄된 무안국제공항이 지난 23일 밤 9시부터 교육 훈련을 위한 비행 허가가 이뤄졌다.

다만, 항공기의 착륙을 돕는 로컬라이저(계류착륙장치)가 파손된 뒤 복구까지는 1년 이상 걸리

는 점을 감안, 육안으로 운항이 가능한(Visual Flight Rules) 낮 시간 비행으로 제한됐다.

무안국제공항의 경우 대학 5곳과 민간 기관 3곳 등 모두 8곳의 교육기관이 항공기 21대를 이용해 비행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한국공항공사와 '무안공항 단계별 운항 대안'을 토대로 운항 일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토부의 '단계별 운항 대안'은 공항 정상화 시

나리오를 담고 있는데, 오는 5월까지 사고 수습과 활주로 정리 등을 진행하고 8월까지 활주로 항행 안전등 보수를 진행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또 참사 이전부터 추진중인 활주로 연장공사가 8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라 활주로 주변 계기착륙시설(ILS·Instrument Landing System) 설치 공사가 완료되는 9월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한 19번 활주로를 아닌, 반대방향 활주로를 사용해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게 전남도 안팎의 분석이다.

계획대로라면 10월부터는 항공기 운항이 가능하게 되는 만큼 올해 동절기(10~내년 1월) 여행 수요 확보를 위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 '시동'

▶1면에서 계속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 계획 등이 최소 3개월 이전부터 확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제선 항공 수요가 집중되는 오는 10월 이후 동계시즌부터는 운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무안공항의 장기 폐쇄가 지역민들의 글로벌 접근성 차단, 관광업계 매출 손실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는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 전남도는 '민·군 공항 무안 동시 이전'이라는 정치적 선택에 따른 목소리만 낼 뿐, 정작 이른 시일 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은 뒷전인 것 같다"며 "7월이면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이 준공될 예정인데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운항을 운운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9일 "무안국제공항 재개항 전에 광주공항에 국제선을 임시 운항하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권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내 과 가정의 학
일반의 이비인후과**

개업원장님모심
병원급 개원도 가능
10년 내과원장 3명 운영, 임대종료.

**군산 중심가
롯데마트 앞**

주차완비, 2층 190py

010-3646-8700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